포항의 역사

The History of Pohang

배용일 / 문학박사, 포항전문대학 교양학 교수
by Bae Yong-Il

1. 촌락형성과 해군기지로 변모(통양포수군만호진 설치)

포항지역은 바다에서 융기된 지역과 형산강에서 퇴적된 삼각주와 같은 사주로 발달하였는데, 사주는 영일만의 조류에 의해 반원형으로 오늘날 동해면의 도구해수역장에서부터 동촌동(현 포제철 공장부지에 편입)을 지나 포항송도해수욕장과 두호동의 북부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남한 제1의 속칭 어리불명사 30리의 모래톱지역의 해안을 형성하였다. 영일만에 유입되는 하천에는 넓은 충적층이 있어, 유수에 의한 운반, 퇴적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 포항 남쪽 5개 섬은 육지가 되었다.

언제부터 인류가 서식하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맞이(해돋이)고장임을 전해주는 영일의 연오랑세오녀 설화를 비롯하여, 무문토기, 고인돌 묘제의 청동기문화 흔적이 넓게 분포되어, 역사의 시원을 밝혀줄 실마리가 되고 있다. 이들 유적과 유물로 미루어 보아 오늘날 포항영역에서는 포항의 양곡(陽谷)이며 진산(鎭山)격인 죽림(竹林山)과 대흥산기슭(현우방아파트 입구지역)과 형산강 하류를 기준으로 동남쪽의 일월동, 남서쪽의 효자동, 서쪽의 이동과 득량동, 북쪽의 장성동과 영덕동 등지의 주변 구릉지대에 먼저 선사문화인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오늘날의 중심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남쪽의 5도와 북쪽의 3호(湖)지역에는 사람이 살지 못했다. 이 지역들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지형으로 개발된 것은 빠른 곳이 고려시대, 늦은 곳은 조선후기로 나타난다.

이 고장은 진한 부족연맹사회 때에 갈산(현 수도산) 이남지역은 성읍국가인 근기국 촌락으로 성장하고, 신라 초기에는 근오지현, 157년(신라 아달라왕 4년)경에는 영일현으로, 757년(신라 경덕왕 16년)에는 임정현으로, 고려시대에는 연일현 또는 영일현으로 개칭된 현에 소속된 마을로 발전했고, 갈산 이북지역은 신라초기부터 퇴화군의 촌락으로 성장하고, 757년에는 의창군으로, 고려시대에는 흥해군으로 개칭된 군의 마을로서 발전하였다.

이 고장은 해안지역이며 왜와 가까웠고, 신라 서울을 향하는 길목이어서, 문물이 미개하고 풍토가 척박했던 왜구의 노략질을 받을 기회가 많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중요 국경지역과 왜구의 잦은 출몰지역에 성을 쌓아 방비를 하고자, 지증왕 5년(504) 흥해의 미실성과 함께 12성을 축조하였다. 미실성은 오천의 고형성 · 신광의 토성과 더불어 영일지역 최고의 성들로 꼽히고 있다.

고려시대에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고 특히 고려말 영일만 주변지역에 왜구가 창궐하자 우왕 13년(1387)조정에서 영일만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일만 내에 통양포수군만 호진[1] 해군기지를 설치하였다. 영일만지역은 1389년 흥해읍성을, 1390년에 영일읍성을 개축하여 방어선이 구축되면서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다. 최초의 해군지기를 설치하여 중앙관리를 파견하여 포항 발전의 첫 발전단계가 되었다. 당시 규모가 어떠했는지 고려시대의 자료로 규명할 수 없으나, 조선초기의 기록(경상도지리지:1425)을 보면 병선 8척과 수군 218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통양포수군만호진은 이후 1510년 칠포로 기지를 옮길 때까지 영일만지역 관방의 해군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여천원 설치, 지명 유래와 조선후기 상권형성

고노(古老)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옛날부터 형산강의 중심하류는 양산미기에서 솔안다리(형 형산교)를 거쳐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것, 효자방면에서 칠성천을 지나 동빈으로 유입되는 것과 북쪽의 갈산앞을 따라 나루끝을 거쳐 학산천을 경유하여 항구동 앞바다로 흐르는 세 갈래가 있었다고 한다.

浦項鎭地圖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조선시대지방지도', 42쪽)

이중 나루끝지역은 〈경상도지리지〉(1425년)에 의하면, 일찍부터 흥해와 영일의 경계지역으로 육상, 해상의 교량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조선초기 이후 포항 서편마을, 남동쪽 주민들과 흥해를 비롯하여 신광, 기계, 청하, 영덕 등지의 북쪽 주민들의 주요통행로로써, 영일만을 에워싼 동해안지역의 육, 해상의 중심길목으로 성장해 왔다. 영일만 어촌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은 배로 운반되어 내륙지방으로, 내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배로 운반되었으니, 200년전 조선후기 나루끝지역은

1) 통양포:현 포항시 두호동

어선, 상선, 뱃사람, 장사꾼 및 구매자들로 크게 붐볐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나루끝 입구지역에(현 덕수천주교회) 포항지역 유일의 여천원이 설치되었다. 원은 공용여행자와 상고 및 사용여행자의 숙식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교통로에 설치된 것인데, 이 제도는 고려 때부터 있다가 조선초기 세종조에 정비되었으며, 임란이후 상공업과 유통경제의 발전에 따라 일반 상인, 여행자들이 원 대신 주점을 이용하면서 쇠퇴하였다.

통양포수군만호진이 홍해 칠포로 이관된 후, 쇠퇴한 이 고장의 형세는 1731년(영조7) 다시 포항 창진이 설치되면서 크게 변모하여, 포항발전의 두번째 단계를 맞이하였다. 포항창진은 정부에서 북관(함경도지방)의 기민구제를 위하여 조운요충지에 설치한 것으로써, 경주. 홍해, 영일, 청하, 장기 등의 환곡을 거두어 보관해 두었다가, 함경도지방에 흉년이 든 경우, 배로 운반하는 관창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예로부터 함경도는 산악지대로 기름진 평야가 적어 곡물생산이 부족한데다가 자주 흉년이 들어 주민들을 괴롭혀왔다. 포항창진이 설치되고 경주와 영일권의 평야를 배후에 두고 영일만과 형산강 하류가 만나는 중심항만지역이며, 함경도에서 가까운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함경도의 중간기착지였기 때문에 관선조운의 최적지가 되었다. 포항창진의 설치 이후 다량의 곡식을 하역 운송에 필요한 많은 노동인구를 유입 정착시켜, 18세기 농촌사회의 변화와 상공업 발달의 시대적 기운을 타고 영일만권의 새로운 생활중심지로 부상하였고, 이로 인해 영일현의 인구가 홍해군의 인구를 능가하였다.

'포항' 지명은 '갯목'이란 한글지명에서 유래하였으나, 포항이란 한자 지명사용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포항이란 지명은 1731년 함경도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관창인 '포항창진'이 대흥산[2]을 배경으로 형산강 북하구(철성강)의 갯미기(갯목)지역[3]에 설치되면서, 명칭의 한자화가 이루어져 개울 '포'자와 목 '항'자의 합칭으로 탄생되었다.

기록상으로 이곳에 장시가 등장하는 것은 1832년이 처음이나, 실제 상업활동과 장시의 등장은 이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장시의 형성시기가 이 고장을 크게 변모 발전케 한 포항창진이 설치된 때와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된다. 이 장시권의 중심지가 포항장, 여천장, 아랫부조장이 열린 포항지역이었다. 포항창진 설치이후 육운, 해운의 조건으로 보아 포항이 해안과 내륙지방, 동해와 남해를 잇는 세곡과 제민양곡의 운반 및 상거래의 중계지(또는 중개지)로서 영일만 상권의 중심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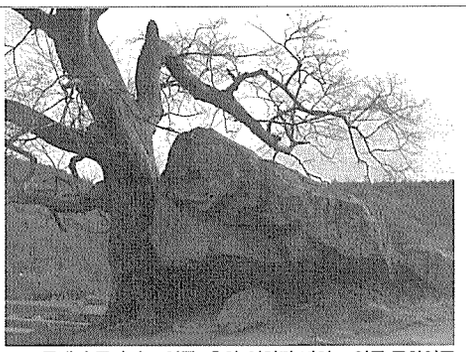
3. 포항진의 설폐와 포항면, 읍으로의 승격

대원군 집권시의 병인양요(고종 3년:1886)는 중앙군제 뿐만 아니라 지방군제 강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고종3년에서 9년 사이에 증설된 변진은 14개소, 방어영은 4개소였는데, 이때 영일만 동해지역의 포항진이 설치되었다. 포항창진이 폐쇄된 지 86년(1870)만에 다시 설치되어, 포항진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1872년 11월에는 삼군부에서 포항진에 별포수 10명을 배치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 때에 영일현에도 별포수 30명이 신설 배치되었다. 1865년 7월에 영일현 임곡진에 이양선 1척이 표박하여 남자 16명과 여자 1명이 상륙한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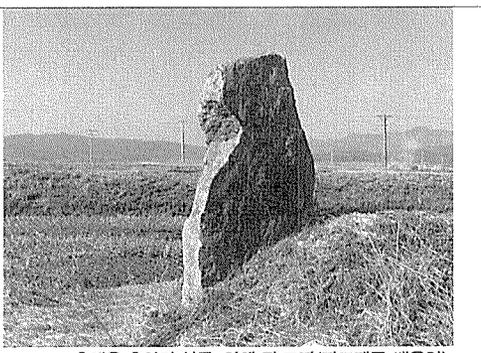
포항진이 비록 3년만에 경제적 운영난과 국내외정치, 안보적 상황변화에 의해 혁파되었지만,1731년 이후 영 · 정조대의 포항창진, 1871년의 포항창, 1976년의 포항진이 국가적 차원에서 존립하여 포항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는 이 고장이 정치, 경제, 군사적 요충지임을 밝혀주는 사료가 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종전의 연일, 흥해, 청하, 장기의 4군을 영일군으로 폐합하여, 포항면이 탄생하였다. 포항면은 3년 뒤 1917년 포항동, 학산동, 두호동의 3개동으로 지정면이 되면서 급성장하였다.

지정면제는 오늘날 읍제의 전신으로 당시 전국

2) 오늘날 대왕산 또는 대안산으로 잘못 칭하고 있음.
3)오늘날의 대흥동-포항역 부근



동해면 공당리 고인돌, 출처:영일만 지역 고인돌 문화연구



흥해읍 흥안리 선돌, 앞책 뒷 표지(자료제공:배용일).

에서 24개면, 경북에서는 포항과 김천 2개면이 지정될 정도로 지정면과 보통면 사이에는 큰 차별이 있었다. 지정면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일본인이 많고, 재력이 풍부한 비교적 도시적인 곳이다. 당시 포항의 인구는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1914년 포항면에는 3,026명(일인1,260명)의 한국인이, 1928년에 7,932명(일인 2,282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포항은 1920년경에 포항면 단독으로 인구순위가 전국에서 30위로 부상하였고, 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35%로서 전국 15위가 되고, 일인 이주증가율이 전국 7위가 되었다. 이는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정책과 이 고장 전래의 개방 진취적인 향토특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면은 1931년 경북의 김천, 경주, 안동, 상주 등과 함께 읍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후 해방될 때까지 포항읍은 한차례 구역이 조정되었다.(1938) 당시의 행정구역은 기존의 포항읍 13개동에 형산면 13개동과 대송면의 송정동 일부를 편입하고, 소화정(대신동), 향조동(송도동)을 신설하여 28개동으로 확장되었고, 포항의 인구는 1942년말에 31,251명(일본인 2,275명)으로 늘어나서 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시적 형세를 갖추게 되었다.

4. 일제병탄기의 포항상공업과 상권의 변화

일제시대 포항은 상업행위가 타지역보다 활발하여 상업종사(교통업 포함) 호수가 약 35%나 되었고, 시장은 한국인 위주의 시장과 일인중심의 시내중심가의 좌고(座賈)시장으로 구분되었다. 재래의 포항, 여천, 부조 등의 정기시장외에 속칭 불종거리에 상설시장이 개설되었다. 부조장은 점차 수산물과 가축류의 주거래장으로 변모되었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 위축되었으며, 반면 포항장(앞장)과 여천장(뒷장)이 번창하여 영일만지역의 상권을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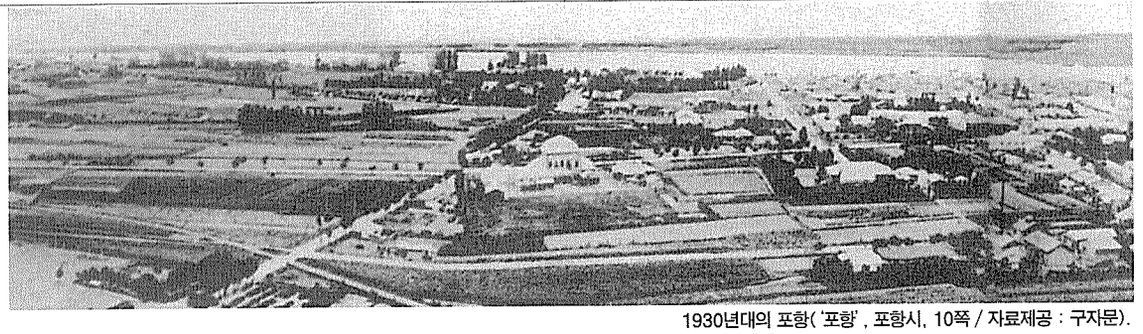
조선후기에 포항장이 지리적 위치나 포항창진의 영향으로 여천장보다 절대 우세하였으나 1920년대가 되면서 직물과 기타 잡품에서 여천장에게 순위를 빼앗기기 시작하여, 1930년대 중반에는 전품목에서 여천장에 뒤지게 된다. 이는 일인들이 포항으로 이주한 후부터 포항의 중심지가 포항시장지역에서 여천시장지역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일인들이 여천, 중앙동에 밀집하여 상권형성 등 모든 지역생활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일제후기 포항의 중심지역인 중정, 본정, 동빈정 등은 거의 일인들의 상가나 주거지가 되었고, 한국인으로서 이곳에 거주하거나 점포를 가지는 경우는 이름난 상공인들로서 손꼽을 정도였다.

포항에는 농산물과 수산물 거래가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주거래상품으로 꼽혔던 것은 수산물의 명태 · 소금 · 청어 · 전복 · 방어 · 대구포 등이었다. 함경남북도지방의 명태가 포항에서 내륙지방으로 거래되어 나갔고, 포항지방의 청어 등 고급어종은 국내보다 일본에 다량 수출되었다. 그리고 포항지방의 소금이 일제 초까지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대만의 값싼 천일염이 수입되면서부터 주거래 상품의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

이 고장의 공업은 일제병탄기에도 수공업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마포, 토관와, 돗자리, 관물, 토시, 담뱃대, 놋쇠용구, 술, 간장 등이 생산 거래되었으며, 소수이지만 일인들도 이러한 업에 종사하였다. 1920년대에 와서는 현저히 변화하여 정미, 조선, 철공, 제재, 주조, 장유 같은 근대공업이 포항에 등장하였다. 당시 포항은 구룡포와 함께 수산가공품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어가공품 제조와 각종 통조림업의 발달은 대표적인 것이었다. 제조와 더불어 양조 · 곡차 · 어구 제조업도 활발하였다. 아직도 몇 분야에서 공산품의 생산수준이 수공업의 단계에 그쳤으며, 제지생산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가의 중요 공산품 업종이었다.

5. 영일만 수산업의 호황

포항의 수산업은 1904년 통어조약 이후 1907년경 일인 기업가 · 어민들의 포항이주가 실시되고, 병란 후 일제가 어업정책의 개선이란 명목으로 수산업침략에 박차를



1930년대의 포항('포항' , 포항시, 10쪽 / 자료제공 : 구자문).

가하면서 1917년엔 지방항 지정, 1923년에 지정항으로 지정됨으로써 조그만 어촌에서 지방항의 면모를 갖추고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 이주어민 호구는 1907년경의 25호, 120명에서 1935년 39호 236명에 달하여 전체 일인의 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영일만 근해의 어황호조로, 1928년의 영일군 수산업자용 선박수가 한국인 1,465척, 일인 2,016척에 이르렀다. 1914년 영일어업조합이 결성되고, 1923년 경북수산시험장과 경상북도수산회가 설치되어 어선 · 어구의 개조와 어로의 개선 및 시험사업의 진전으로 새로운 어장이 개척되고, 공장설비에 의한 가공제조기술이 진보하고, 항만의 축조 · 수축에 의한 해운이 발달하고, 제염업이 활발하여 포항은 경북 제일의 근대적인 어항과 상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영일만어업은 청어 · 정어리 · 고등어 · 대구어업이었으며, 어업의 호황은 양식업과 수산제조가공업에도 영향을 주어, 양식은 1917년 영일어업조합에서 대송면 해안 부근에서 시도한 바 있었으나 실패하여, 1926년 이래 바위김의 양식을 도모한 결과 양질의 제품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바위에 시멘트를 발라 번식을 도모하여 1935년경에는 어촌부업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6. 근대적 항만형성과 포항시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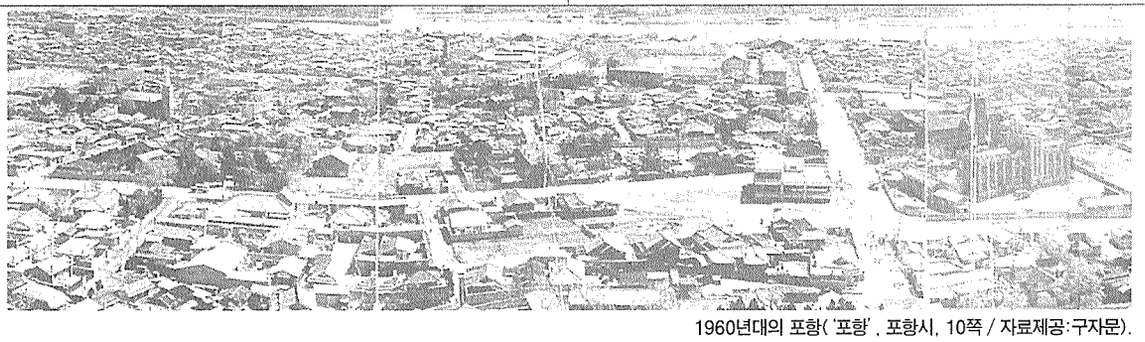
포항의 해운은 조선후기 남한의 농산물과 북한의 명태등 해산물의 교역지로 범선의 출입이 상당수에 달했으나 무역항으로서의 조건은 갖추지 못하여, 구한말에도 한국정부가 소유한 융성호가 연 5~6회 입항하던 정도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4월 이후 3년간에 한반도 연안 각 방면에 9선의 명령항로를 정하여 연안항로를 통일하였다. 이 기간에 정기적 해운이 시작되고, 이어 영일만 -울릉도선이 조선우선(주)에 의해 개설되어 정기적인 해상교통이 이루어지고, 1918년에는 조선우선의 웅기관문선과 부산원산선 그리고 부산울릉도간을 항해하는 기선 기항이 이루어지고, 10년후 1928년에 이르러서는 1년간 1,010척의 기선출입과 1,112척의 범선출입 및 포항과 그 주변에 근거지를 둔 어선 5,117척의 출입이 있는 상당한 규모의 해운항으로 발돋움하였다.

형산강의 남북하구가 토사로 메워져 선박출입과 어로작업이 불가능해지고 심할 때는 포항주민의 인명과 재산이 크게 손실되어, 포항항만기성회(회장:일본인)를 결성하여 당국에 청원한 결과 1914년 10월에 형산강제방축조공사를 도에서 착수하였다. 이 기간에 포항은 1917년 지방항, 1923년 세관지정항으로 승격 지정되고 포항과 일본, 빈전 간에 직통 새항로가 개설되어 외항해운이 개시되어 항세가 신장되었다. 일본자본의 해운업독점과 확장에 따른 항만시설의 확충으로 포항항을 출입하는 선박수가 증가하였다. 화물량이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부두노동자 등 인구가 증가하였다. 1934년 포항항 출입선박수는 1,700척(총 572,907톤)이며, 수출입한 화물은 81,300톤이 되어 포항항은 전국적 규모의 항구로 성장하였다.

포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고, 근대 항만시설의 설치와 수산업의 호황으로 읍승격 이후 도시세가 더욱 성장하여 해방후 시로 승격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갖추게 되었다.[4] 광복 후 4년간 포항읍 시기를 거쳐, 1948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항부가 포항시로 개칭되었다.

포항이 도시적 형세를 갖추면서 국제적 항구로 발돋움하고자 한 노력은 일제의 태평양전쟁의 도발로 중지되었고, 광복후 자유당정권시절에도 수심이 얕아 대형선박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 19혁명후 포항개항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노력하였고, 1961년 5 · 16 이후, 1962년 포항지정항이 된 후 동년 6월 12일 인천 · 부산 · 마산 · 군산 · 목포 · 여수 · 묵호 · 제주에 이어 포항개항장으로 탄생하게 되어, 1968년 포항제철(주)의 포항유치설립의 기본여건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포항개항의 지정은 현대적인 국제무역항으로서의 포항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4) 1942년말 현재 인구 31,251명



1960년대의 포항('포항', 포항시, 10쪽 / 자료제공:구자문).